

보도시점 2026. 10. 11.(일) 12:00 (2026. 10. 12.(월) 조간)

학교 밖 청소년의 일하는 권리, 노동교육으로 지킨다

- 한국고용노동교육원, 경기도 꿈울림 축제서 상담·체험형 노동교육 운영 -

한국고용노동교육원(원장 이종선, 이하 ‘교육원’)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와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권익을 이해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, 지난 9월 30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열린 「제9회 경기도 꿈울림 축제」에 참여해 노동권익 교육·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.

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축제로, 교육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초기 경제활동 진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·부당처우 등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대처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‘KELI, 내일(My Job)을 짊다!’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.

이날 체험부스에서는 ▲청소년 노동교육 콘텐츠 상영 ▲1:1 노동권 상담 ▲‘내일(My Job)’ 노동상식 O/X 퀴즈 ▲‘인생네컷’ 포토존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약 15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했다.

특히 교육원 노동법·노사관계 전문 교수진이 참여한 ‘노동권 상담존’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, 임금, 근로환경 등 청소년들이 실제 일터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1:1 상담을 진행했으며,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공공 권리구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정보를 안내했다.

‘내일(My Job) 퀴즈’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, 휴일, 산재보험, 최저임금 등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노동상식을 O/X 문제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,

노동교육 영상과 포토존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.

이종선 원장은 “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 노동시장에 비교적 일찍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알고,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며 ‘고용노동교육 2.0’ 비전을 통해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노동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▲2026년 경기도 꿈울림 축제에서 진행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행사부스

담당 부서	학교교육팀	책임자	팀 장	송덕근	(031-760-7780)
		담당자	연구원	김규리	(031-760-7879)

한국고용노동교육원(KELI) 소개자료

□ 한국고용노동교육원(KELI;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, 이하 ‘교육원’)은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설립된 이후,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통합·운영되다가, 2020년 「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」을 근거로 독립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출범

□ 교육원의 설립목적(교육원법 제1조)

- : (대상) 노사관계 당사자와 고용노동 업무 종사자,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하여
- : (수단)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, 전문성을 강화하며 노동관계 문제 해결역량을 제고함으로써
- : (목적)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

□ 교육원의 주요 기능(교육원법 제6조)

- : ①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, ②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, ③ 청소년·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, ④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·보급 및 관리, ⑤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, ⑥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,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등

□ 주요연혁

- 한국노동교육원 설립 : 1990년
- 교육 대상 확대 : 고용노동부 공무원 직무교육(1999년)
청소년 등 일반 국민(2004년)
- 기관 및 근거 법률 폐지: 2008.12
 - * 기존의 관련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로 이관
- 독립기관(노동부 12개 산하기관 중 하나)으로 재출범 : 2020.10
 - *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다시 제정(2020.3)